

예술인 복지 지원·문화 콘텐츠 확산

광주문화재단 2022년 사업 계획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 문화허브 목표
‘시민중심·소통협력·전문성’ 키워드
위드 코로나 적극 대응 네트워크 확대

올해 창립 11주년을 맞은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예술인을 존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 문화허브’를 2022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올 한해 위드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술인 지원·복지서비스 대폭 확장 ▲지역 문화가치 전국적 확산 ▲온·오프라인 플랫폼 및 네트워크 확대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술인 지원·복지서비스 확장

재단은 올해 예술현장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를 대폭 확장한다. 지난해 문화예술 전문서비스 기관 역할 재확립을 위해 신설한 ‘예술인보듬·소통센터’를 본부 단위로 확대하고 기존 창작지원팀 이외의 예술복지팀을 신설·배치해 예술인 원스톱 지원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원로)예술인을 위한 활동증명·신청대행 등을 위한 ‘예술인복지 창구’도 지속 운영하며, 창작기획·세무회계·창업 등 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예술상담실ON:결에’도 본격 운영에 맞춘

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예술날개)’의 연속사업인 ‘광주형 장애인예술지원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지역 문화가치 확산 작업 확대

지역의 사라져가는 문화예술콘텐츠 발굴·기록 및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작업도 확대된다.

재단은 광주의 기원 등에 대해 조망하는 토론의 장 ‘광주학 톨로키움’과 동네책방 연계 북토크 프로그램을 ‘광주문화 자산구축사업’으로 통합, 지속적인 광주 근현대 문화예술지원발굴 작업에 나선다. 또한, 신규사업 ‘광주문화예술기록화’를 위한 문화예술인아카이브’를 통해 광주 원로 예술인 심층 인터뷰 등 광주 근현대문화사 구술 서적을 발간할 예정이다.

전국의 지역 출판물과 독서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광주동구 한국지역도서전’도 개최된다.

◇온·오프라인 플랫폼 활성화

위드 코로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온



광주문화재단이 무등산권 관광활성화 모색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무등산 천제 행사’.

·오프라인 플랫폼과 네트워크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를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 재단은 ‘디어마이광주’를 통해 예술인·시민, 수요자·공급자 등 실시간 교류가 가능한 양방향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오프라인 판매장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간 네트워크 확대 운영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협의회’ 공동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4월에는 ‘문화예술 정책 동향 파악 세미나·포럼’, 9월에는 4개 지역 예술인 주도로 진행되는 ‘아트마켓+예술인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문화기관 간 담론형성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추진된다. ‘문화정책(정책워크숍)발안대 프로그램’과 ‘정책 네트워크 담론지 발간’ 등을 진행하는 등 지역 문화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아트특화 공간(미디어놀이터·스페이스5G네 등)을 상설 운영하고, ‘홀로그램극장’은 작가들의 창작공간, ‘미디어338’은 국제제지던시 전시공간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무등산권 관광활성화 모색을 위한 재단 지속사업인 무등올림축제, 무등산 천제 행사도 운영되며,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으로 뮤지컬광주(시즌3) 추진과 창작관현악곡 국내외 연주회, 민주주의 상징곡 국제학술행사 등도 추진한다.

/오지현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4월 28일 개막

10일간 오프라인으로...운영 정상화 의지 담아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올해 영화제 일정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직위는 올해 영화제를 총 18개 섹션, 230편 규모로 500회 이상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직위는 “이는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를 염두에 둔 중장기적 계획과 더불어 영화제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투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영화제는 대면 행사를 정상적으로 치르는 동시에 한국 영화사 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획전도 마련한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태형영화사 회고전’. 태형영화사 회고전은 한국 영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데 공헌한 태형영화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태원 태형영화사 전 대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고

전에서는 1980~1990년대 한국영화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태형영화사의 대표작인 ‘취화선’, ‘세기말’, ‘금홍아 금홍아’, ‘경마장 가는 길’, ‘기쁜 우리 젊은 날’ 등 8편이 관객들과 만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골목상영’ 프로그램을 올해도 실시한다. ‘골목상영’ 프로그램은 실재가 아닌 전주 영화의 거리 등에서 관람객들이 상영작을 예매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프로그램 기획 등 관객들의 눈길을 끌 만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지만 단계별 방역 조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진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예년보다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 최선을 다해 영화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지난해 국민 독서량 ‘뚝’...전자책 영향

2년 전보다 성인 3권·학생 6.6권 ↓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과 학생의 독서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2020년 9월~2021년 8월)간 종이책과 전자책·소리책(오디오북)을 합한 성인의 평균 종합 독서량은 4.5권으로 2019년 조사 때보다 3권 줄었다.

지난 1년간 일반 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인 연간 종합 독서율도 47.5%로 8.2%포인트 감소했다.

초·중·고교 학생은 연간 종합 독서량(교과서·참고서 등 제외)이 34.4권, 종합 독서율이 91.4%로 2019년보다 독서량은 6.6권, 독서율은 0.7%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20대 청년층(만 19~29세) 독서율은 78.1%로 2019년보다 0.3%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모든 성인 연령층과

비교해 높은 독서율과 많은 독서량을 보였다.

종이책 독서율은 성인 40.7%, 학생 87.4%로 2019년보다 각각 11.4%포인트, 3.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19%, 학생은 49.1%로 2019년보다 각각 2.5%포인트, 11.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학생과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자책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오디오북 독서율은 성인은 4.5%, 학생은 14.3%로 2019년보다 성인은 1%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학생은 4.4%포인트 하락했다.

이번에 처음 조사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독서 생활 변화’와 관련해선 성인은 대체로 큰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나, 학생은 독서량, 종이책 독서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40% 이상이었다. /연합뉴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장도’

예술마루 창작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 개인전

하루에 두 번 다리가 잡기는 신비로운 섬 여수 장도. GS칼텍스 예술마루 창작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들이 장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한 릴레이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GS칼텍스 예술마루 창작스튜디오는 지난 2020년부터 국내외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 및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2기 장기 입주작가인 정유미, 이윤배, 김재린 작가는 약 9개월간 스튜디오에 머물며 작품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12일 전시를 마친 정유미 작가는 직접 경험한 자연을 감각각적인 심상으로

드러내며 섬의 가시적인 풍경뿐만 아니라 여행 중 느낀 심상의 풍경을 상상을 통해 재현해 냈다. 특히 특정 색상의 반복적 표현과 섬세한 필치를 통해 밀도를 높여 대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입체적인 느낌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18일 시작돼 내달 13일까지 열리는 이윤배 작가의 전시는 바다와 육지, 섬과 도시 사이에서 그가 경험한 이질적인 삶의 체험뿐만 아니라 타인과 나, 이상과 현실, 동심의 추억과 사랑 등을 테마로 한 주변의 이야기가 담겼다. 내달 18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리는 김재린 작가의 전시



이윤배 작 ‘사랑노래-사계’

에서는 자연적 재료와 구제(증고)재료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예술의 가치를 실천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GS칼텍스 예술마루 장도 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 휴관이다. /오지현 기자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2022 Vol.74 01

커버스토리

김상목 김대중컨설팅센터사장
“MICE 인프라 대폭 강화
미래 신사업 발굴 역점”

지역특집

1004섬 공유했다 사업

한국의 명장

한국의 매사냥

“MICE 인프라 대폭 강화·미래 신사업 발굴 역점”

시·그린 등 호남권 혁신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력 2025년 제2전시장 개관 사업권 대표 전시장 우등내부 직원과 소통...민·관·학 연 협심 전략적 마케팅지역민에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겠다

【특별 초대석】 김원익 의원

사람 사는 세상 만들 ‘목포의 젊은 정치인’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병원 유치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신년기획】 학생 선택적 자율학습 확대

2022년 교육과정 개정...디지털·민주교육 확대고교학점제 확대

2025년 입학·교육회복 중점 추진

【주목 이 사람】 최범재 시의원

“난임치료 지름길은 체계적 치료 계획”

난임치료, 건강 보험 급여로 편입돼야 여성 나이 35세 이전 임신계획 추진

【이달의 도서】 한강 작 ‘작별하지 않는다’

부커상 수상 이후 5년, 한강 문학이 도달한 곳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란다.”

【스포츠 & SPORTS】

2022년은 스포츠의 해

베이징동계올림픽·향저우아시안게임·카타르월드컵

수천년 이어져온 수렵놀이

매사냥

[한국의 명장] 매사냥 수천년 이어져온 수렵놀이 ‘매사냥’ 단순 포획 아닌 인간과 매가 함께하는 합작품유네스코 등재 됐지만, 지방 무형문화재 2명 그저

안수기의 건강백세

백 개는 다

지역특집 1004섬 공유했다 사업

세계꽃피는 할망섬 ‘신원군’으로 떠나볼까

이색카페

양악당20대부터 90대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수제 양갱

‘할매일’ 취향 저격·SNS 소문만으로 전국구 맛집

정직·신뢰·친절·맛·인테리어 다섯 마리 토끼 다 잡은 비결

■ 구독문의 : 062) 720-1014 ■ 기사제보 : jnreviews@hanmail.net

2022년 1월호 | 제74호 | 값 10,000원 | 1년 정기구독료 100,000원